

교통 대란 해소한다더니...환승주차장 '텅텅'

성판악 가깝다고 마방목지 몰려
탐방객 차량 혼잡 사고 발생 우려
미터기 끈 불법 택시 영업도 성행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 주차장(왼쪽)이 꽉 찼으나, 성판악탐방로와 거리가 먼 제주국제대 버스 환승용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제주 한라산 탐방객들이 성판악 주차장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환승주차장' 대신 탐방로와 더 가까운 제주마 방목지 주차장으로 몰리고 있다.

3일 제주시 용강동 516도로에 위치한 마방목지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렌터카 등이 이른 오전부터 세워져 있었다.

차량을 몰고 온 탐방객들은 이 곳 마방목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버스를 타고 한라산 성판악 코스로 향했다.

방목지 인근의 푸드트럭 업주는 "성판악 주차장 일대 도로에 주·정차를 막기 위한 규제 봉이 세워진 후 탐방객 차량이 방목지 주차장으로 몰려 연일 포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 A씨도 "현재 단풍이 절정이고 주말엔 방목지 도로변에도 차가 세워져 휴식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마방목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옆으로 걷는 방문객

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면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마련된 버스 환승용 주차장은 한산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쉽게 목격됐다.

이 환승주차장은 지난해 12월 고질적인 성판악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99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성판악과 더 가깝단 이유로 제주국제대 환승주차장 대신 마방목지 주차장으로 탐방객 차량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탐방객을 성판악까지 태우고 가려는 불법 택시 영업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들 택시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영업에 나서는가 하면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등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라산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탐방 예약객이 연일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주국제대 인근 환승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안전사고, 불법 영업 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단풍 행락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실형 뒤 2년 안 지나면 여행업 못 한다

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보증보험 범위 등도 개선

앞으로 실형 등을 살고 나온 후 2년이 안 지난 사람은 여행업에 뛰어들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여행업 업종 통합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여행업을 종합 여행업, 국외 여행업을 국내의 여행업으로 명칭 변경했다.

특히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행업 보증보험 범위에서 여행 앞선 관련 사고는 여행계약 이행 관련 사고로 명확해졌다.

한편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ilbo.net

자치경찰 순찰차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로 안전 강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라 순찰차가 무인 차단기에 막혀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자치경찰단은 이를 통해 순찰차가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

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기존 차단기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해 자동 통과가 가능토록 개선하거나 자동 통과 기능이 있는 신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아파트, 공용주차장, 상가 빌딩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제주의료원은 3일 치매안심병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의료원 제공)

제주의료원, 도내 첫 '치매안심병동' 본격 운영

51병상 구비...24시간 전담 인력 구성

제주 첫 '치매안심병동'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은 3일 의료원 관계자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병동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넘어서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해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18억6000만원을 투입해 51병상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증·개축했다.

앞으로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동은 24시간 전담 인력으로 구성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중증환자 집중 치료,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은 "치매안심병동 개소로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오늘 날씨 ※ 날씨 제공 = 기상청(www.kma.go.kr), 문이 = 국번없이 131

11월 4일(목)
(음력 9월 30일)

☀ 해돋이 06:55 | 해질 17:39
🌙 달돋이 05:49 | 달질 17:22
☁️ 물때 7물
·만조 10:06 / 22:06
·간조 04:04 / 16:34

가끔 구름 많음, 곳곳에 약한 비

제주 14/21 (60/20)	성산 12/20 (10/20)
한라산 7/15 (60/20)	서귀포 14/21 (20/20)
고산 14/20 (60/20)	

기온(°C) 최저/최고
강수량(%) (오전/오후)

주간 날씨

5일(금) 12/22	6일(토) 16/20	7일(일) 17/22	8일(월) 16/17	9일(화) 11/16	10일(수) 11/15	11일(목) 11/17
----------------	----------------	----------------	----------------	----------------	-----------------	-----------------

신천지 예수교회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요한계시록 새 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2021.10.18.~12.27. 매주 월, 목 오전 10시

말씀대성회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2-502-6424, 070-4441-5735, 010-3084-5511

신천지예수교만도레지단